

미술계 활황... 광주는 아니올시다

최근 미술시장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으나 광주는 미술 시장 자체가 없는 데다 작가 육성시스템도 마련되지 않아 모처럼 만에 찾아온 호재를 지역 미술시장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상업화와의 부재, 작가들의 연구 위주 작품 매매, 미술 소비층 부재 등 해묵은 과제를 해결할 방안이 미흡해 이같은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또 지역 작가 육성을 위해 광주시립미술관이 창작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으나 연간 예산이 350만원에 불과, 미술계의 관심을 지역으로 유도하는 스타작가를 배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광주 미술계의 침체와 달리 부산에서는 미술시장의 열기가 지역 미술계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 관공지라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살림미술애호회가 두터운 점 때문에 중앙화랑들에게 매력적인 장소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국내 최대화랑 중 한 곳인 가나아트 갤러리가 오는 5일 해운대 노보텔 엠베서더 호텔에 전시관을 오픈하는 것을 비롯 경매회사인 서울옥션은 지난해 4월 부산사무소를 열었다.

여기에서 전주에 이어 대구 등에도 경매회사가 생겨나 미술 시장 활성화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전주의 솔갤러리가 만든 A옥션은 지난해 1월 첫 경매를 전주 리베라 호텔에서 실시했으며, K옥션은

작가 육성시스템·매매시장 부재 등 총체적 부실 실수요층 개발·저변확대로 활성화 방안 찾아야



최근 경매시장의 활황으로 미술계가 활기를 띠고 있는 것과 달리 광주 미술계는 작가 발굴 시스템 부재 등으로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사진은 지역작가들의 창작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시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대구 MBC와 손잡고 오는 8월28일 대구 MBC사옥에서 대구 경북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첫 경매를 열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광주가 미술품 투자

열기를 적극 활용하는 타 지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미술 인프라의 핵심인 미술애호층 발굴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시립미술관이나 상업화랑에서

전문가들을 초청, 수준높은 미술 강좌를 개최함으로써 미술의 저변을 넓히는 한편, 실수요층을 적극 개발해 미술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병식 경희대 교수는 "미술 애호층 숫자로는 전국적으로도 뒤쳐지지 않는 광주 지역민들의 미술마인드를 일깨우는 것에서부터 미술시장 활성화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를 대표하는 '전국구 작가' 육성을 위해서는 시립미술관의 창작스튜디오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현재 예산으로는 작가 육성의 부담이 되는 전시회를 여는 것조차 버거운 실정이기 때문에 비엔날레 재단과의 공동 운영이 확실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미술 전문가들은 작가들의 변화도 주문하고 있다. 지역 작가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끊임 없는 자기노력과 미술시장의 흐름을 읽는 시각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미술평론가 정준모씨는 "최근 미술계의 풍토는 출신 지역이나 학원을 따지지 않고 작품성으로 작가에게 기회를 주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며 "작품성만 뛰어나다면 공공기관이나 화랑 등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도 이름을 알릴 기회가 있는 만큼 '자기 마케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남녀가 함께 하는 여성주간

7일까지 광주·전남 곳곳서 토론회·한마당 축제 등 풍성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삶이 풍요롭게!'

여성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성 평등 촉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마련되는 여성주간(7월1일~7일) 행사가 올해도 다채롭게 열린다. 광주시와 지역 단체의 일부 행사는 최근 막을 내린 세계여성평화포럼 준비 관계로 행사 일정이 다소 미뤄졌다.

올해 여성주간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

전남도는 5일 오후 1시30분 목포시 민문화센터에서 여성주간 기념식을 갖는다. 전 참석자가 참여하는 퍼포먼스와 가족화합노래자랑 등이 펼쳐지며 송봉숙 의원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

광주여성민우회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는 여성학자 오한숙의 초청 강연회를 갖는다. 3일 오전10시 광주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오씨는 '부부성(性)에 공들이는 시대'를 주제로 강의한다.

광주YWCA는 5일 오후 2시 YWCA 강당에서 '이주 여성의 행복한 삶을 위한 토론회'를 갖는다. 석창원 (사)무지개 다문화가족 상담이사



여성주간을 맞아 광주·전남 지역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달빛 시위' 행사 장면.

가 강사로 나서며 장미경(전남대 교수)씨와 이주여성 김분옥·이사벨·서영숙씨가 함께 토론한다.

광주여성노동자회는 5일 오후 5시 광주관전터미널에서 비정규직 해고 오한숙의 초청 강연회를 갖는다. 3일 오전10시 광주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오씨는 '부부성(性)에 공들이는 시대'를 주제로 강의한다.

광주여성의 전화는 '안전한 바깥'을 주제로 달빛 시위 행사인 '달빛 아래 거침없이 당찬 그녀들(달당녀)'을 개최한다. 6일 오후 7시 광주 관전터미널 야외무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달빛시위 선포, 권리

한장 낭독, 달빛 시위 행진 등으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19일 오전 10시 광주 구동실내체육관에서 빛고를 여성 화합 한마당 축제를 연다. 이날 행사에서는 축하공연, 명랑운동회 등이 펼쳐지며 각 구청별로 '양성평등 모범 부부'를 선정, 시상한다.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오는 31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5회 광주여성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임내현 전 광주교감장의 특강과 함께 무등여성대상 시상식이 열린다.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설치작가 정운학 '안티노미'展

5일까지 광주롯데화랑

설치작가 정운학씨가 5일까지 광주롯데화랑에서 '안티노미(ANTI-NOMY)'를 주제로 전시회를 갖는다.

정씨는 이번 전시에서 두 명제가 서로 대립, 모순돼 양립할 수 없는 상태를 조형언어로 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그는 눈에 보이는 사물을 파악하는 일련의 작업을 통해 공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다.

'뚝의 기동'과 '구석'은 현대인들이 바라보는 사물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던짐으로써 시각의 허구적 측면을 조명하고 있다.



그는 '무제'를 통해 조형적 실험도 시도한다. 스테인리스 철근에 매달리거나 둘러싸여 있는 작은 돌맹이들의 형상은 자연의 생태적 리듬을 조형화한 것이다. 문의 062-221-1807~8.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청소년권장도서 전국 중학생 독서감상문대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민병욱)는 청소년권장도서 10종을 선정해 전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독서감상문 대회를 개최한다.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12명 등을 시상하며 가장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응모한 학교 3곳에 단체상을 수여한다.

해당 도서 중 한 권을 읽고 독서감상문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9월 16일까지이며, 수상자는 10월 17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kpec.or.kr)에 공고한다.

대상 도서는 ▲그 해 겨울엔 눈이 내렸네(솔·크리스티안 시블) ▲나

의 별에도 봄이 오면(산하·고운기) ▲하늘 어딘가에 우리 집을 묻던 날(사계절출판사·로버트 뉴턴 펴) ▲환상동화(하늘연못·프란츠 카프카 외) ▲거짓말을 하면 얼굴이 빨개진다(비룡소·라이너 에를링어)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북센스·박경화) ▲어머니는 나에게 싶은 일을 하라고 하셨다(누리북·데즈카 오사무) ▲당신도 동물과 대화할 수 있다(산티·마타 윌리엄스)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푸른숲·한비아)

▲행복한 사람, 타샤 튜더(윌북·타샤 튜더) 등이다. 문의 02-2669-0742~4.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16세기 부부는 서로 '자네'라 불렀다"

한중연 황문환 교수 논문...19세기까지 '마누라' 극존칭으로 사용

'자네 내에게 돌이 머리 세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 하시더니 어찌하여 나를 두고 자네 먼저 가시는고...' 이용태묘(1586년)에서 나온 언간(소한글 편지)의 첫 부분이다. ▲거짓말을 하면 얼굴이 빨개진다(비룡소·라이너 에를링어)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북센스·박경화) ▲어머니는 나에게 싶은 일을 하라고 하셨다(누리북·데즈카 오사무) ▲당신도 동물과 대화할 수 있다(산티·마타 윌리엄스)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푸른숲·한비아) ▲행복한 사람, 타샤 튜더(윌북·타샤 튜더) 등이다. 문의 02-2669-0742~4.

한글학중앙연구원의 황문환 교수는 한중연이 발간하는 반년간 학술지 '장서각' 최근호에 실은 '조선시대 언간 자료의 부부간 호칭과 화계(話階)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조선시대 부부간 대화의 유형을 고찰했다.

황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16세기 후반까지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는 물론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자네(자네)'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의 종결형 역시 '하소'체가 사용됐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할 때 '자네-하소체 종결형'의 말투를 사용한 것과 동일하다.

18~19세기에도 남편과 아내는 '계서'라는 동일한 호칭을 사용했다. 밀양박씨(1700~1737)는 편지에서 남편을 '계서'라고 불렀다. 18~19세기 남편이 아내에게 쓴 편지에 등장하는 '계서'와 동일한 호칭이다. 19세기 언간에서는 '마누라'와 '나으리'라는 호칭이 발견

됐다. 흥선대원군은 언간에서 부인을 '마누라계서(마누라계서)'로 표기했다.

황 교수는 "존칭의 주격조사 '계서'와 결합한 것으로 보아 존칭의 호칭으로 쓰인 것이 분명하며 '중년'이 넓은 아내를 허물없이 이르는 말'인 현대국어의 마누라와는 경여적 가치가 다르다"고 단정했다. 19세기까지 마누라는 아내의 극존칭으로 사용된 셈이다.

황 교수는 "아내가 남편에게 쓴 편지 자체가 워낙 드물어 몇몇 사례만으로 조선시대 부부간 호칭을 확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며 "반드시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덧붙였다. /연뉴스

movies

이제야 황금시대! Happy Time

영화야니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 런던악국사거리 ☎예매1544-0600

1관	트랜스포머-디지털 (12세) 최고급관
2관	트랜스포머-디지털 (12세)
3관	오션스 13 (12세)
4관	4.4.4. (18세)
5관	트랜스포머 (12세)
6관	러브애틀러블 (15세)/검은집 (18세)
7관	캐리비안의 해적3 (12세) / 씨노이브 (18세)
8관	검은집 (18세)
9관	트랜스포머 (12세)

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더이왕이 종료됩니다.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무로잡곤 휘퍼-티켓만 있으면 잡곤이 무료

모든 것은 변신한다

트랜스포머

—주차장이 편한 극장—

엔터시네마

충장로 5가 ☎ 228-2700

1관	트랜스포머 (12세)
2관	4.4.4. (18세)
3관	검은집 (18세)
4관	오션스13 (12세)
5관	슈렉3 (전제) (18세)
6관	황진이 (15세)
7관	밀양 (15세)

금,토(2일간)심야상영

*자주식 동시 주차장 200대 <3시간 무료> *매주 금·토 심야 2,000원 할인*

검은집

월드시영 영화시영 *예매:www.joycbo.com/1588-7941

컬럼버스시네마 상무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역화리역면)

1관	오션스13 (12세)
2관	캐리비안해적3 열세살 수아 (12세)
3관	트랜스포머 (12세)
4관	트랜스포머 (12세)
5관	슈렉3 (전제) / 4.4.4. (18세)
6관	슈렉3 (전제) / 뜨거운 녀석들 (18세)
7관	트랜스포머 (12세)
8관	황진이 (15세)
9관	검은집 (18세)
10관	트랜스포머 (12세)

*호남 최대 주차장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상무점연결 번호 -1번(0건) -0번

컬럼버스해남점 (107명) 점리리 상영중

오션스13

즐거움이 가득 *www.mct12.co.kr/1588-9101

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

1관	4.4.4. (18세)
2관	오션스13 (12세)
3관	트랜스포머 (12세)
4관	트랜스포머 (12세)
5관	트랜스포머 (12세)
6관	트랜스포머 (12세)
7관	슈렉3 (12세)
8관	뜨거운 녀석들 (18세) / 캐리비안의 해적3 (18세)
9관	검은집 (18세)

*리버사이드호출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특별석 최면을 위한 전용행구 마련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

*전화예약 가능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뜨거운 녀석들

세로노기름 *www.primuscinema.com/www.jellcinema.co.kr*

제일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트랜스포머 (12세)
2관	트랜스포머 (12세)
3관	오션스13 (12세)
4관	검은집 (18세)
5관	4.4.4. (18세)
6관	슈렉3 (12세) / 캐리비안의 해적3 (12세)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혼남주차타워)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4.4.4.